

꿈과 도전의 무대 '전국장애학생체전' 12일 팡파르

15일까지 부산서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광주, 10개 종목 122명...역도 김유나·신정아 등 기대 전남, 역대 최대 296명...육상·e스포츠 등 활약 예상

전국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부산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국장애학생체전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8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대회에는 17개 종목(육상 5·6급 11·전시 1)에서 5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총 122명(선수 75명, 감독·코치 21명, 임원 및 관계자 26명)이 출

전해 육상 등 10개 종목에서 메달 46개(금메달 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8개) 획득을 목표로 한다.

먼저 역도 김유나(선예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김유나는 지난해 대회 여자 -60kg급 지적 OPEN 중등부 스쿼트·데드리프트·파워리프트 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같은 종목 신정아(선예학교)의 활약도 기대된다. 그는 지난해 대회 여자 -60kg급 지적(발달) 고등부 스쿼트 경기에서 66kg을 들어 올려 학생 신기록을 경신했다.

육상 이가은(광주선명학교), 배드민턴 송형우(광주선명학교) 역시 기대된다. 이들 역시 지난해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며 종목 최강자로 떠올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에 앞서 결단식을 개최하며 선수단의 사기진작과 필승의지를 다졌다.

결단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광주 장애인체육회 주요 인사들과 광주 선수단 학생·교사·임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수단 대표로 선서한 배드민턴 송형우와 수영 김하진(광산중)은 끈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올려 광주의 위상을 높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흘린 땀방울이 값진 결실을 맺어, 장애학생 선수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학생체육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

을 보내주시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광주장애인체육회는 학생선수들이 체육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선수단은 11개 종목에 총 296명(선수 159명, 감독 44명, 코치 30명, 보호자 32명, 임원 31명)이 나선다.

전년 대비 1개 종목(디스크골프)과 31명의 선수단이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경기(292명), 부산(168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학생 선수단이기도 하다.

전남장애인체육회와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대회에 앞서 많은 학생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 참가요강과 선수 등록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 2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하며 전남 선수단 지원 및 협조사항, 선수복 및 ID카드 배부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섰다.

전남은 이번 대회 육상 종목 활약이 예상된다. 특히 육상(트랙·시각) 여자 100m와 200m에 출전하는 노연희(은광학교) 지난해 대회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며 기량을 과시했다.

지난해 금 2·은 6·동 6개를 따내며 종합 2위에 오른 e스포츠 종목 역시 더 높은 곳에 도전한다. 여기에 지난해 수영(지적) 2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김수현(구례여중)과 배드민턴 여자 단식(지적) 금메달을 획득한 김예지(함평영화학교) 또한 정상 수상을 노린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하는 전남선수단이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스포츠를 통한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경험하길 바란다"면서 "전국의 장애 학생들과 우정과 화합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현장 지원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해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역도 종목에서 다량의 메달을 획득한 광주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지난해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e스포츠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 전남 선수단.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광주체중 육상부, 전국종별선수권서 메달 행진

혼성 1600m 계주서 금메달 금 1·은 2·동 5 수확 '눈길'

광주체중중학교 육상부가 전국 무대에서 메달 행진을 펼쳤다.

광주체중중은 최근 목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중은 남중부 17명, 여중부 10명 등 총 2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이들은 단거리와 중장거리, 계주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기량을 선보이며 학교 육상의 저력을 입증했다.

가장 빛나는 종목은 남녀혼성 1600m 계주였다. 류지우·김현호(이상 3년), 김도현·이세령(이상 2년)으로 구성된 광주체중중 팀은 3분51초9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경기 경안중(4분06초71)과 전남체중(4분29초20)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중부 3200m 계주에서도 메달 소식이 이어졌다. 손예원·신윤아·안예지(이상 3년), 은예령



광주체중 육상부가 최근 목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체중

(2년)으로 꾸려진 팀은 10분21초69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확보했다.

개인 종목 역시 선전이 이어졌다.

여중부 1500m에서는 안예지가 5분08초49로 2위, 손예원이 5분09초13으로 3위에 오르며 나란히 시상대에 섰다. 안예지는 여중부 3000m에서도 11분00초73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하며 중장거리 기대주다운 면모를 보였다.

단거리와 허들에서 또한 메달이 나왔다. 김아인

(3년)은 여중부 100m에서 12초46, 100m 허들에서 14초93을 기록하며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중부 높이뛰기에서는 김민기(2년)가 1m75를 넘으며 값진 동메달을 보냈다.

이병관 광주체중 교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땀방울과 지도진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학생들이 더 큰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알파니즘, 히말라야 미답봉 'SAT PEAK' 세계 첫 등정

안치영 원정대, 6220m 정상 등극...알파인 스타일 패거

한국 산악계가 히말라야의 험준한 미답봉에 첫 발자국을 남기며 세계 등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대한산악연맹은 '2026 히말라야 SAT PEAK 원정대'가 현지 시각 지난 2일 오후 4시 15분, 네팔 칸첸중가 지역 사르푸 산군의 SAT PEAK(6220m)을 세계 최초로 등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이탈리아 원정대가 4년 전 실패했던 고난도 구간을 정복하며 거둔 결실이다.

안치영 대장을 필두로 한 7명의 정예 대원은 지난달 11일 장정에 올랐다. 이들은 나뭇대 협곡 상단에 거점을 마련한 뒤, 가파른 설벽과 칼날 같은 빙능선을 뚫고 루트를 개척했다. 특히 안치영 대장과 이상국, 이의준 대원은 험난한 동벽 및 동남벽 구간을 돌파하며 마침내 정상 고지를 밟았다.

이번 등정의 핵심은 '알파인 스타일'이다. 외부 지원을 최소화하고 장비와 간소화해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 방식은 현대 알파니즘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로 꼽힌다.

원정대는 4월 말 베이스캠프를 떠난 뒤 기상 악화는 변수 속에서도 침착하게 전진했다. 지난 1일 캠프3를 구축한 이들은 다음 날 곧바로 정상을 탈환하는 저력을 보였다.

SAT PEAK은 2022년 유럽 등반가들이 전위봉 근처에서 발길을 돌렸을 만큼 악명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암벽과 빙벽이 뒤섞인 혼합 구간이 끊임



대한산악연맹 깃발을 들고 정상에 선 (중양)안치영 원정대장. (좌) 이상국 대원. (우) 이의준 대원. 제국-대한산악연맹 없이 이어지는 지형적 특성 탓이다. 한국 원정대는 이를 극복함으로써 기술적 우위의 불굴의 의지를 동시에 증명했다.

조직원 대한산악연맹 회장은 "악조건 속에서 정통 알파니즘의 정수를 보여준 대원들이 대견하다"며 "대한민국 산악인의 저력을 지구촌에 각인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DYPNF, HK이노엔, 노스페이스의 후원을 받은 이번 원정대는 현재 하산 일정을 소화 중이다. 캠프3 비박을 거쳐 베이스캠프로 무사히 복귀한 뒤, 현지 정리 작업을 마치고 오는 1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다. 이번 패거리는 침체된 국내 등반 열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해은 기자 nab@gdream.com

목포대 육상부 김정인 학생,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 금 획득

여자대학부 7종경기 '우승'... 국가대표 선발대회서 경쟁력 입증

국립목포대학교 육상부 김정인 학생(체육학과 2년)이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7종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정인 학생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7종경기(100m 허들, 200m, 800m,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에 출전해 전 종목에서 고른 기량을 발휘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을 겸해 열린 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김정인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뛰어난 체력·기술을 바탕으로 정상에 올라 그 의미를 더했다.

국립목포대 육상부 지도교수인 박희석 교수는 "선수들과 지도진이 흘린 땀과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훈련을 통해 더 높은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목포대 체육부는 앞으로도 우수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대 체육학과 육상부 김정인 학생(왼쪽 세번째)이 제5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7종경기에서 출전해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FC, 팬과 함께하는 '옐로우 마켓' 운영

프로축구 광주FC가 팬들에게 구단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광주는 9일 오후 4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홈경기에서 앞서 광주FC 플라마켓 '옐로우 마켓(Yellow Market)'을 운영한다.

옐로우 마켓은 경기 당일 오후 2시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광장에서 진

행된다. 경기 시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수단 실착 사인 유니폼을 비롯해 시즌별 유니폼, 트레이닝 웨어, 구단 MD, 경기용 축구공 등 광주의 발자취가 담긴 다양한 헤리티지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옐로우 마켓을 통해 팬들과 구단의 추억을 공유하고, 팬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